

GS칼텍스, 첫 통합 챔프 도전

2008~2009시즌 이후 12년만에 사상 2번째 정규리그 우승
‘학폭 논란’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 떠나자 전력 약화 2위

GS칼텍스가 사상 두 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거머쥐면서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흥국생명은 1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0-3(18-25 15-25 16-25)으로 완패를 당했다.

2위 흥국생명(19승 11패·승점 56)이 패한 가운데, GS칼텍스(20승 9패·승점 58)는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 없이 우승을 확정지었다.

GS칼텍스는 2008~2009시즌 이후 1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다. 통산 3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과 함께 통산 첫 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GS칼텍스는 시즌 전 컵대회 결승전에서 흥국생명을 잡아 파란을 예고했다.

그러나 GS칼텍스는 막상 시즌이 시작하자, 흥국생명의 막강한 전력

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흥국생명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김연경에 국가대표 레프트 이재영, 세터 이다영이라는 걸출한 선수들로 진용을 구축했다.

흥국생명은 개막 후 10연승을 달리며 손쉽게 통합 우승을 달성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흥국생명에 과거 ‘학교폭력’ 약제가 나오면서 이재영, 이다영이 팀을 떠나 전력의 크기가 약화됐다.

GS칼텍스는 흥국생명이 흔들리자, 무섭게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

GS칼텍스는 지난 2월14일 인삼공사를 시작으로 3월12일 IBK기업은행과의 경기까지 과속의 6연승을 질주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흥국생명과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대역전극의 신호탄을 쏘았다.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집념으로 1위를 탈환했고, 이날 우

승을 확정지었다.

GS칼텍스 외국인 선수 러츠는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주장 이소영과 강소휘는 노련함으로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 했다. 안혜진은 주전 세터로 자리잡아 안정적인 볼배급을 선보였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비 시즌 동안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고, 시즌 중에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전력을 극대화했다.

GS칼텍스는 오는 26일 장충체육관에서 플레이오프(흥국생명-기업은행) 승자와 챔피언결정전 1차전을 치른다.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GS칼텍스는 남은 기간 충분한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전력을 다질 계획이다.

뉴스



양현종, MLB 두 번째 시범경기서 2이닝 3K 무실점 호투

시범경기 평균자책점 3.00으로 낮아져

미국 메이저리그(MLB) 무대에 도전장을 낸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서 패투를 펼쳤다.

양현종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아메리칸패밀리 필드 오브 피닉스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2021 MLB 시범경기에서 3-3으로 맞선 5회말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아내며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초청 선수 신분으로 텍사스의 MLB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인 양현종은 시

범경기 첫 등판이었던 8일 LA 다저스전에서 1이닝 2피안타(1홈런) 1탈삼진 1실점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6일 만에 나선 두 번째 등판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양현종은 첫 상대인 윈슨 타자 개릿 미첼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다.

이어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와 대결한 양현종은 포수 드류 부테라가 2루 도루를 시도하던 미첼을 잡아내 첫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양현종은 브래들리 주니어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후속타자 아비사일 가르시아를 유격수 직선타로

처리했다.

6회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잭 그린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양현종은 좌타자인 딜런 쿨린스, 빌리 매키니를 잇따라 삼진으로 속아내며 이닝을 삼자범퇴로 마무리했다.

양현종의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3.00으로 낮아졌다.

7이닝까지 진행된 경기에서 텍사스와 밀워키는 4-4로 비겼다.

텍사스 투수진 중에서 실점하지 않은 것은 양현종이 유일했다. 선발 카일 코디가 3이닝 4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고, 지미 허켓(1이닝 1실점), 브렛 더거스(1이닝 1실점)도 모두 실점했다.

뉴스

‘삼진 2개’ 김하성, 5경기 연속 침묵...볼넷만 1개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5경기 연속 침묵했다.

김하성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021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그는 두 번이나 삼진으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켰다.

5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안타를 때려낸 이후 5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친 김하성의 시범경기 타율은 0.125에서 0.111(18타수 2안타)로 떨어졌다. 삼진은 7개로 늘었다.

2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을 맞은 김하성은 스탠딩 삼진으로 물러났다. 5회말에도 역시 서서 삼진을 당했다.

김하성은 8회말 무사 1루 상황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11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의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1회 수비하고 있다. 김하성은 2타수 무안타 1볼넷 1삼진을 기록해 시범경기 4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쳐 타율은 0.125(16타수 2안타)로 떨어졌다.

볼넷을 골라냈다. 1루를 밟은 김하성은 대주자로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한편 샌디에이고는 애리조나에 3-6으로 졌다.

EPL 26년만의 최고 콤비 손흥민-케인 “기록 깨자 했다”

“앞으로도 많은 경기 있기에 기회 더 많을 것”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26년 만에 해리 케인과 EPL 단일 시즌 최다골을 합작한 손흥민이 열린 시어러-크리스 서턴(이상 당시 블랙번)의 기록을 깨자고 기거투합했던 사실을 털어냈다.

손흥민은 13일 네이버스포츠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타이 기록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대가 됐고, 꼭 깨고 싶었다”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 8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0~2021시즌 EPL 27라운드에서 3-1로 앞선 후반 31분 정확한 크로스로 케인의 헤딩 썩기골을 도우며 토트넘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이 골로 손흥민과 케인은 이번 시즌 EPL에서 14골을 합작하며 1994~1995시즌 당시 블랙번 로버스에서 13골을 함께 만든 시어러-서턴의 EPL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기록을 26년 만에 깼다.

손흥민은 “케인과 ‘기록을 깨자’라고 대화를 나눴었다. 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많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기회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 이걸로 끝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했다.

케인에 대해서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다. 케인이 거의 모든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부담을 가질 부분이 많지 않다. 경기장뿐 아니라 사적

으로도 친하다”며 “케인의 긍정적인 태도, 성실함 등으로 함께 하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시점, 20년이 지나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케인과 함께 뛰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보냈다.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떠나 토트넘에 돌아온 가레스 베일에 대해서 “베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팀에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 훈련하고 노력하는 걸 알기에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베일은 아직 초반 출전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지만 최근 손흥민, 케인과 함께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골맛도 봤다.

손흥민은 “타이밍의 문제였다. 폼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몇 년 동안 폼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제서야 플레이 타임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회복되고 골을 넣기 시작했다. 그는 팀을 위해 경기한다. 기쁘다. 축구의 퀄리티를 보면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베일은 기회를 만들고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베일과 케인, 나 모두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 베일이 폼을 유지한다면 팀에 엄청난 부스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강경민·원선필·김지현 국가대표 배출

31일까지 도쿄올림픽 대비 강화훈련 참가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통합 3위 성적을 거둔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에서 국가대표 3명이 배출됐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도시공사의 강경민(CB), 원선필(PV), 김지현(LB)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도쿄올림픽 대비 강화훈련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강경민은 올시즌 206골을 기록해 득점 1위, 공격포인트 1위(275개), 리

그 MVP를 2차례 수상했다.

또 원선필과 김지현은 각각 피벗과 레프트백 부문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이들은 17일 오후 충북 정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19일 인천선수촌에 입촌해 31일까지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한다.

대한핸드볼협회는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22명의 선수 중 최종 14명을 선발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다.



강경민 (사진 =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김지현은 “국가대표 강화 훈련에 처음 참여한다”며 “선배들과 손발을 맞춰 열심히 해 꼭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감감무소식’ 이승우, 포르투갈 데뷔전은 언제쯤

임대 이적 후 6경기째 결장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해 포르투갈로 터를 옮겼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승우(포르티모넨스)의 포르투갈 1부리그 데뷔전이 또 미뤄졌다. 이승우는 14일(한국시간) 포르

투갈 아조레스의 폰타벨가다에서 열린 산타클라라와의 2020~2021 프리메이리리가 23라운드 원정경기 출전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달 벨기에 생활을 접고 포르티모넨스 유니폼을 입은 이승우는 즉시 전력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합류 후 6경기 연속 모습을 드러내

지 못했다.

포르티모넨스는 산타클라라에 0-2로 패했다. 최근 1승1무의 상승세가 끊긴 포르티모넨스는 승점 23(6승5무12패)으로 18개팀 중 12위를 기록 중이다.

뉴스

‘148km’ 노히트 대외 데뷔전...거침없는 KIA 이의리

한화 이글스전 2⅓이닝 1사구 2볼넷 무안타 3탈삼진 무실점

화끈한 대외 실전 데뷔였다.

KIA 타이거즈 고졸 루키 이의리(19)가 첫 대외 연습경기에서 호투를 했다.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 등판해 2⅓이닝을 1사구 2볼넷 무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되는 기쁨도 누렸다.

4회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첫 타자 하주석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고 두 타자도 범타로 요러했다. 5회는 최재훈을 사구로 출루시켰으나 연속 삼진을 돌려세웠다. 다시 볼넷을 허용했으나 정은원을 1루수 파울 플라이로 잡았다.

6회는 노시환을 볼넷으로 내보냈 다. 다음타자 하주석을 투수 땅볼로 유도하고 경기를 마쳤다. 43구를 던

졌고 직구를 중심으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변화구도 섞었다. 최고 구속은 148km를 찍었다. 직구는 100% 제구는 아니었지만 힘이 좋았다.

그러나 변화구의 제구는 돋보였다. 윌리엄스 감독도 “변화구 제구가 앞선 등판 때보다 좋았다”며 칭찬했다. 지난 7일 자체 연습경기에서 6타자 1볼넷 무안타 호투에 이어 대외 첫 실전에서 패투를 펼쳤다. 양현종의 빈 자리를 메워야 되는 KIA에게는 희망을 주는 피칭이었다.

경기후 이의리는 “첫 대외 경기라 기쁘지 말고 내가 할 것만 해보자고 마음 먹고 던졌다. 오늘은 공격적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하체가 받쳐주고 밀어서 나가야 하는데 밸런스 밀렸다.



릴리스 포인트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닝수를 많이 소화하지 않았다. 이닝을 늘리면서 하체 밸런스를 보완해 나간다면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체력 안배를 하는 부분도 생각하겠다”고 선발투수의 속제도 내놓았다.